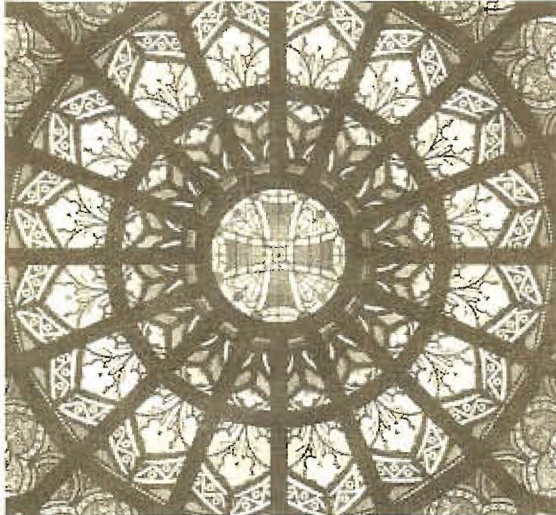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제31권 5호(가해) 2010.12.26

[묵상]



성가정<루가 유리화공방, 2010년, 지름 3m, 홍은동성당>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가정을 이룬 예수, 마리아, 요셉은
이 세상 죄의 세력에 밀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십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로,
갈릴래아 지방을 떠나 나자렛으로.

구세주를 알아 모시지 못한,
혹은 구세주를 원하지 않는 세상은
아기 구세주의 목숨을 노리지만
하느님의 인도를 받은 성가정은
이 세상의 푸대접에 놓인 구세주를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치 않는 이들에 의해 여기저기 쫓겨나고
반대 세력에 의해 여기저기 내팽개쳐져도
그 모든 것을 감싸 앗을 수 있었던 성가정.

성가정의 보호막과 사랑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지켰듯이
예수님을 지키는 나의 사랑이
세상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 성모회/자모회 ●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파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이호순 프란체스카, 김현숙 벨라벳가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엄은섭 도로테오,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이상범 다윗, 이순 마리아 & 김시형 시릴로, 김종환 야고보, 이은환 야고보, 서이환, 김만성, 박송희 (생)윤희동 안토니오와 윤남열 세라피나의 대자녀들, 이덕철 루카 & 이순자 비비안나, 이민상 사도요한, 박광자 소화대례사, 김씨니 클라라, 김행선 율리아나, 윤미애 안나, 양희숙 오틸리아, 이재정 사도요한, 오세원 아타나시오와 루시아의 대자녀들, 홍광선 요셉 & 이호미 엘리사벳 가정, 윤화정 바오로 & 윤경옥 실비아 가정, 이명렬 라파엘 & 이명순 크리스티나 가정, 이동준 프란치스코 & 박혜빈 크리스티나 가정, 이근모 마리아 & 이행자 리드비나, 성모회원 가정, 이문오 사도요한 & 박외자 스텔라, 유요한 요한, 박광식 바오로 & 박정희 마리아 가정, 홍석인 체칠리아, 이호순 프란체스카, 문 밍티스타 수녀, 조옥중 사도요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3,2-6.12-14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 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 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는 네 손으로 벌어들이니,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3,12-21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마태오(Matthew) 2,13-15.19-23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45	101
봉헌	137	147
성체	135	139
파견	142	146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

▶안락사의 비극

장차의 불멸성에 대한 확실성과 부활의 약속에 대한 희망은 고통과 죽음의 신비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주며, 믿는 이들을 하느님의 계획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채워준다.

사도 바오로는 모든 인간의 조건을 끌어안으신 주님께 완전히 속한다는 말로써 이러한 새로움을 표현한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로마 14,7-8).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성부께 대한 순명의 절대적인 행위로서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을 뜻하며(필립 2,8 참조), 그분께서 원하시고 선택하신 "때"에 죽음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요한 13,1 참조).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이 자신의 지상 순례를 끝마쳤을 때에만 그럴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역시, 고통이 그 자체로는 여전히 악이고 시험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나눔을 통한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의 은혜로운 선물과 자신의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고통을 체험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길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겪어내는 사람은 더욱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며(필립 3,10; 1베르 2,21 참조), 교회와 인류를 위한 그분의 구속사업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성 바오로가 체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체험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골로 1,24).

▶국법과 도덕률

68).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인간 생명에 대한 오늘날의 침해들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특성들 중의 하나는 법적인 정당화를 요구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그러한 공격들을, 적어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권리인 양 주장한다. 그 결과, 이러한 권리들을 의사와 의료 요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도움을 받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생겨나고 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이나 심각한 장애를 지닌 사람의 생명은 단지 상대적인 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흔히 제기된다. 비례적인 방법이나 순수한 계산 방법 중의 하나에 따라서 이 선을 다른 선들과 비교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 성가정 이룹시다!

인터넷에서 ‘가정’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사전에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라는 정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더구나 혈연으로 맺어진 그 인연의 무게는 가히 짐작이 가지 않을 만큼 무겁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누구나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최종적 조화의 상태입니다. 가정을 부디 당신의 본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가정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천국에 가장 가까운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정을 천국과 닮게 하십시오”(지나 체르미나라).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한 가정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깊어져야만 하는 책임이 부담스러워서 결혼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 설혹 결혼한다 해도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이나 재혼 문제 때문에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힘들어하는 현상은 이젠 더이상 새로운 문제로 인식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인연인 우리 가정들은 ‘왜’ 이렇게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일까요? 문득 자신의 가정을 폭군인 헤로데 왕의 박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과 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먼 나라 이집트로 피신한 요셉 성인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의 원전이 무엇일까 묵상하게 됩니다.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



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7~28).

우리 사회에 가정의 붕괴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또 각 가정마다 맞이하는 위기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도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이 ‘성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우리와 달리 거룩하고 훌륭한 분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세 분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의인들’이었기 때문에 ‘성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당신의 말씀에 보다 충실해서 내년에는 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희자 마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엄영숙 마리아	신덕례 데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사도요한
제2독서자	유현자 안나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아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성가정 축일♥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가정은 복음서에 잘 묘사되어 있으며, 초대교회 때부터 공경해 왔고, 중세기부터 대중적 신심 대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21년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예수 공현 대축일 다음 첫주일로 성가정 축일을 제정했으나, 이후 1969년 전례력 개정 때, 성탄 대축일 후 첫 주일로 옮겼습니다.

- 매일미사 -

- ◆ 송년미사 및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
12월31일(금) 밤11시30분
* 31일(금) : 아침 평일미사 없습니다.
-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1월1일(토) 오전 11시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없습니다. 특전미사 : 7시pm)

- ◆ 새해(2011년/신묘년/가해) 본당 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 누구나 가고 싶은 성지(터키, 그리스, 요르단, 포르투갈)를 주제로 한 2011년 본당 달력을 교우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전례력, 독서, 복음, 축일, 절기 등을 담은 새해 달력은 신심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달력제작에 도움을 주신 광고협찬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 제단체 송년모임
● 요셉회 : 오늘 주일(26일) 낮미사 후 12시30분, 강당
● 대진회 : 오늘 주일(26일) 오후 6시 Toyo Sushi
● 부부동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본당 설립 30주년 맞이 전 신자 친구약 통독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1년 동안 전 신자 친구약 통독을 실시합니다. 성서 읽기에 맞추어 알기 쉬운 해설을 주간별로 해드립니다. 성서 공부와 함께 성서 통독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경읽기표 이번주일(26일) 주보에 삽지, 배부

- 시작 : 2011년 1월6일(목)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 오후 8시, 강당
(같은 내용을 오전/오후 두번 공부합니다.)
- 지도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안나회 동전 모으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봉헌내역 : 2010년 주일미사 전후 본당 안나회가 봉사한 불우이웃과 장애인 돕기 동전모으기 바구니에 총 \$1,762를 넣어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본당 빈첸시오회와 사회복지분과 홀리스 돕기, 그리고 LA 다운타운에 있는 작은 예수회, LA대교구 은퇴수도자기금에 나누어 각각 전달됩니다.

◆ 주일학교 성탄축제 물적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 : 양업체, 정동호 하삼바오로 님

◆ '백삼위 한인성당' 공식 사진 웹사이트 개설

우리 본당 공식 사진 웹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향후 성당에서 촬영하는 사진은 이 웹사이트에 별도 공지없이 등록됩니다. 인화를 할 수 있는 원본 그대로 게재되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인화하거나, 온라인에서 바로 인화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flicker.com/photos/103skcc>

◆ 백삼위 성모회 신년모임

- 일시 : 1월7일(금) 오후 6시30분, 강당
- 참석자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문의 : 성모회장 최옥희 데레사 ☎(310)508-2912

◆ 성물부에 소성무일도 구비

성물부에 평신도용 소성무일도가 구비되어있습니다. 또 성탄과 새해를 맞아 영적 선물용 성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0)539-3377 김춘자 막달레나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26일(주일) : 토런스 서2반(전주식롱나물국밥 \$3)
- 1월2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떡 \$4.50)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강태홍	구자운	권진열	김교복
	김낙기	김병태	김병학	김상규	김양금	김우용
	김원모	김정순	나정훈	문충한	박근식	박기돈
	박상준	박음전	박정자	박정희	박종선	박진수
	반비오	배태임	성지용	신경훈	신중철	안태갑
	엄세중	오진	원건희	유근우	유근태	유영균
	유태현	육근주	윤석봉	윤선희	윤성순	윤화경
	이남현	이명자	이영석	이용무	이정우	이현주
	임순	임연조	장수창	정규숙	정상문	지경수
	차정애	최길주	최수복	최원석	최의수	최현찬
	홍석인	홍선자	황인중	황지영	합계 : \$8,405	
미사헌금 : \$3,116						
성전헌금	강순복	강인모	강태홍	구자운	김교복	김낙기
	김병학	김양금	김우용	김원모	나경훈	문충한
	박기돈	박정자	박정희	반비오	성지용	신경훈
	신중철	안태갑	엄세중	원건희	유근우	유근태
	유영균	유태현	윤성순	윤화경	이명자	이영석
	이일길	이정우	이현주	임순	장수창	정규숙
	정상문	지경수	차정애	최길주	최수복	최원석
	최의수	최현찬	홍석인	황인중	황지영	합계 : \$4,495
합계 : \$4,495						
감사헌금 : 윤화경 윤자열						
한남체인 도네이션 : \$390						

공지사항

◆ 주일학교/한국학교 겨울방학

- 오늘 주일(26일)/1월2일 두주일, 수업 없습니다.

◆ 배론 청년회 회원 모집

"평범한 신앙생활은 거부하고 있는~데~"

- 청년이세요?
- 혼자 미사드리기 심심하세요?
- 토요일 밤을 뜻깊게 보내고 싶으세요?
- 주님과 함께하는 백삼위 청년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 * 배론 청년회 미사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교회로 많이 인도합시다.
- * 모임일시 및 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성당 강당
-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청년회장 ☎(310)650-6057
박소영 프란체스카 부회장 ☎(323)313-7255

◆ 2010년 교무금/성전헌금 오늘 주일(12월26일) 마감

-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초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오늘 주일(12월26일)까지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0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남가주 소식

◆ 장애인과 은인을 위한 송년미사 및 송년의 밤

- 주관 : 남가주 한인 가톨릭 장애인 복지회
- 일시 : 오늘 주일(26일) 오후 5시30분
- 장소 : LA 아그네스 한인성당 회관
- 대상 :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 관심있는 일반교우들
- 문의 : 장애인 복지회 ☎(213)382-8806

◆ 미서부지역 한인 CLC 신년 특강

- 주제 : 성령의 선물, 일곱가지 이야기
- 일시 : 1월11일(화) 오후 7시
- 강사 : 이영석 신부
- 장소 : LA 아그네스 한인성당(2625 S. Vermont Av.)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 1월12일(수)~17일(주일)
- 장소 : 오렌지카운티 매리우드 피정의 집
- 주제 : '텅빈 충만' (이영석 예수회 신부 지도)
- 신청 :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이번 주 단체 모임

가정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12/10(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2/11(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2/10(금) 오후 8시 상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2/18(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카토 619-7763	박미카엘 316-7608 12/11(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진숙 로사 543-9051 12/13(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최옥희 데레사 423-9075 12/17(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김행선 올리아나 972-9193 12/8(수) 오전 10시30분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김희연 루시아 750-4051 12/11(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정동호 하상 바오로 780-9055 12/25(토) 오후 6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테나타 808-5005	서창호 바오로 968-1344 12/17(금) 오후 7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카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2/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재일 미카엘 544-9460 12/10(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윤은정 미카엘라 265-0856 12/17(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2/14(화) 오전 10시30분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성사적 사랑인 부부 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이에
게 드러난 성탄을 기뻐하며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
가정 축일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함께 사랑과 가정의 의
미를 되새기는 가정 성화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간을 통해 인격의 참된 통교를 실현하도록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사랑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더욱 공고
히 하기 위해 혼인 예식 때 하느님 앞에서 했던 처음 약속
들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매 순간 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혼인 생활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많은 부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타성에 젖거
나 혼인 약속에 더 불충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조건을 따지
는 타산적인 사랑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
고 바라는 사랑도 이제는 의심과 불신으로 변했다고 슬퍼
합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사랑도 잦은 실망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 되어 버렸다고 아파합니다. 이런 부부들에
게 혼인은 더 이상 인격적 통교 안에서 서로를 완성하는
사랑의 여정이 아니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처럼 보
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부의 모습은 성사적 사랑의 표
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부들이 혼인 예식 때의 첫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조건 없는 사랑, 한없는 신뢰,
그리고 참된 인격의 친교를 회복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
에 의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다 주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
로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부부 사랑이 내재적으로 지향
하는 그 완성에 도달하면 부부 애덕이 되고, 이것은 그리
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
랑을 부부가 실천하고 참여하는 적절하고 특수한 방법입
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 서로
에 대한 상심으로 아파하는 부부들에게 제시하는 길이 들
어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것이 주님
의 성령 때문이었던 것처럼, 회복도 성령을 통하여 가능
하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이 성사이고 거룩한 일인 것은
하느님이 세우신 제도이고 또 이 제도 안에서 하느님이
성령을 통하여 모든 부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혼인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
움들을 성령과 함께 극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경하게 행동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다면 해결책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부부의 삶 안에,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안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다운 가정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으로 일치된 가정, 그리고 신앙의 정신대로 사는 부부와
가정이 혼인 성사를 선택한 부부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새
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사랑이 도달하려는 목표인 완성을 향한
노력입니다. 서로를 실망시켰던 행동들을 돌이켜 서로에
게 다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약속
에도 충실하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노력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가부장
적인 가정의 모습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들이 성의 차이에서 오는 역할을 모호하게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며 동등한 주체와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람직
하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모습은 이 시대에 새로운 것
이 아니라 교회가 늘 가르쳐 오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들은 서로에게 다시 희망을 걸어야 합니
다. 희망만이 우리를 꿈꾸게 하고, 애초의 혼인 약속으로
되돌아가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희망은 우리에게 빛이 되
어 줍니다. 혼인 성사의 약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성
령께 청하십시오.

교회는 혼인한 모든 부부들이 처음 약속에 충실하고 또
이 약속을 항구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축복하고 지지합
니다. 그리고 가정사목을 통하여 이를 적극 지원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을 조건 없이 내줌으로써 부부 사랑
에 거하시느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소명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주지 않더라도 먼저
자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청하십시오. 그리고
자신과 배우자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부부 사랑
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거룩한 곳입니다. 모든 불
신과 어려움을 성령께 맡기고 서로를 용서해 줍시다. 서
로를 따뜻하게 맞아 줍시다. 이 은총의 한 주간 동안 부부
사랑을 다시 찾고 또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의 노력에 하
느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내릴 것입니다.

◆12월 26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황철수 주교